

# 히브리대학교 성서 케테르 예루살라임

이익상\*

이 글은 히브리 대학교에서 2000년에 처음 간행하였고, 늦은 2002년에 이르러 일반인들의 손에 처음으로 쥐어진 히브리대학교 성서 *케테르 예루살라임* (כתר ירושלים *keter Yerushalaim*, Jerusalem Crown)을 소개하는 글이다. 아주 학문적인 글이라기보다는, 언제부터 히브리대학교에서 성서 편찬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떠했으며, 기존에 발간된 히브리어 성서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무게의 중심을 두었고,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독특한 지면 구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성서를 활용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다. 독자들은 이 글을 통하여 손쉽게 히브리대학교 성서를 이해하고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개할 내용은 히브리대학이 *케테르 예루살라임*을 간행하면서 함께 출판한 안내서 “히브리대학교 성서 *케테르 예루살라임*”(כתר ירושלים-תנ"ך האוניברסיטה העברית בירושלים) *Jerusalem Crown-The Bible of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을 근거로 한 것임을 밝힌다.

\*

히브리대학교는 1950년대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알렘포 사본을 기초로 한 성서편찬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물들을 차례로 내어 놓았다. 처음 결실은 1953년에 움베르토 카수토 (Umberto Cassuto) 교수가 알렘포 사본과 다른 사본들을 비교 연구한 노트인데, 그는 이 작업을 마치지 못하고 타계하였다. 이후 히브리대학교 성서 *토라 네비임 케투빔* (תורה נבאים כתובים)이 발간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케테르 예루살라임*이 발간되었다.

1940년대에 히브리대학은 수세기를 걸쳐 내려온 다양한 전통의 성서들을 바탕으로 삼아 더 정확한 성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에 이르러 히브리대학교 성서 프로젝트(the Hebrew University Bible Project)

---

\* 히브리대학교 석사과정 재학 중.

를 세웠다. 이 프로젝트가 계속되는 동안 권위 있는 런던과 레닌그라드의 사본들이 속속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방대한 연구조사와 열띤 토론 끝에, 일반에게는 알렘포 사본이라고 알려져 있는 *케테르 아람 쯔바*<sup>1)</sup> (כתר ארם צובה, the Aleppo Codex, Manuscript No.1 of the Ben-Zvi Institute for the Study of Jewish Communities in the East)가 현재까지 발견된 사본 중에 가장 정확한 최고의 사본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히브리대학교 성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본문으로 확정하였다.

\*\*

그렇다면, 왜 알렘포 사본인가? 알렘포 사본의 무엇이 특별하기에 알렘포 사본을 가장 권위 있는 사본으로 결정 내리고 이 사본을 기반으로 새롭게 성서를 발행하였을까? 비록 알렘포 사본이 성서의 수많은 사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본 중의 하나일 지라도, 이보다도 약 천 년이나 더 오래된 사해 사본도 있는데 말이다. 알렘포 사본은 티베리아스에서 10세기 초반 기록된 것이다. 1세기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워진 티베리아스는 성전 멸망 이후,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BT. Rosh Hashanah 31a), 예루살렘 탈무드 (תלמוד ירושלמי talmud yerushalmi, ‘팔레스타인 탈무드’라고도 한다)가 4세기에 완성된 곳이기도 하다. 명망 있는 랍비들이 티베리아스에서 활동하였으며,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중심지가 되었다. 티베리아스와 연관되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히브리어 모음 음가 표기 (ניקוד niqud)와 마치 노래하듯 성서를 읽을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액센트 및 끊어 읽기를 가르치는 역양법 (טעמים te'amim)이 성서 본문과 결합하여—모음 표기는 이미 바빌론과 팔레스타인 전통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티베리아스의 마소라 본문이 가장 발전되고, 정확하게 성서본문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받아들여졌다—마소라 (Masorah)라고 불리는 통일되고 확증된 성서 본문이 집대성된 것이다. 더욱이 10세기에 티베리아스에서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단지 문학작품이나 예전을 집전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장소에서만 히브리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말하고 서

1) *케테르* כתר의 문자적인 의미는 ‘왕관’이다. 특별히 이것은 성서 두루마리 장식의 맨 위에 있는 왕관 모양의 장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케테르*라는 말은 관용적으로 ‘기록하고 값진 성서’, 특별히 알렘포 사본을 말한다. 알렘포 사본의 중요성과 그 명성 때문에 특별히 알렘포 사본(ארם צובה) 앞에서는 *케테르*라는 수식어구가 붙는다. (ארם צובה는 ארם צוב로 쓰여질 수도 있다). *쯔바*는 시리아의 지역 이름이다. 시리아 알렘포의 유대인 공동체들이 이 필사본을 *케테르 아람 쯔바*라고 부른 것은 이 사본이 처음 알려진 이후 몇 백 년이 지난 후부터였다.

로 의사소통을 하였으니, 티베리아스에서 알렘포 사본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알렘포 사본의 중요성과 그 정확성을 이해하는 데에 더없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 더하여 알렘포 사본이 다른 사본보다 더 중요하며 권위가 있는 사본으로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원자료가 된 괄목할 만한 이유는 알렘포 사본이 마소라 학자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마소라 학자들은 성서의 본문에 관하여서 그 후학들과 자손들에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필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도 정밀하게 전수하였다. 마소라 학자들의 이 방대하고도 정밀한 작업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전수되었고, 티베리아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 공동체는 그들이 기록한 성서 사본이 다른 사본에 비해서 더욱 정확하게 성서의 내용과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마소라 전통에 의거한 사본은 수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되었고, 필사되었지만, 그 중의 소수의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하고도 대표적인 사람은 알렘포 사본을 만든 아론 벤 모세 벤 아셀(אַהֲרֹן בֶּן מֹשֶׁה בֶּן אֲשֶׁר Aharon ben Moshe ben Asher)이다<sup>2)</sup>. 그가 죽은 후, 이 사본은 11세기 중반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 카라이트<sup>3)</sup>(קראים)들에 의해서 보존이 되었다. 이 사본은 이집트를 거쳐 알렘포의 유대인의 손에 전해졌다. 티베리아스-예루살렘-이집트-시리아(알렘포)에 걸친 긴 여정 속에서도 이 사본은 손상되지 않은 채, 완벽한 모습으로 1000년 이상 잘 보존되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잉크가 벗겨져 나가고, 부분적으로 손상되기도 하고, 19세기 이르러서는 곰팡이 때문에 홍조를 띤 보랏빛의 자국만 남은 부분도 생기게 되었지만, 알렘포 유대인 공동체의 사본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오래된 많은 사본들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사본이 되었다. 하지만, 이 사본에도 시련은 있었다. 1947년 반 유대주의가 시리아 지방에 확산이 되면서,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이들의 폭동이 알렘포에서 발발하였고, 폭도들은 알렘포 사본이 보관된 회당에 불을 질러 버렸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부분의 사본들은 이미 은밀한 장소로 옮겨져서 참혹한 비극의 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본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존되지는 못했다. 다섯 개의 두루마리 중, 아가

2) 알렘포 사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현재 러시아의 성 페테르스부르크(St. Petersburg 레닌그라드)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카라이트들의 성서 사본에서 밝혀졌다.

3) 9세기 아난 벤 다윗(אַנָּן בֶּן דָּוִד Anan ben David)에 의해서 창시된 유대인의 한 종파이며, 그 수는 아주 적었다. 이들은 기록된 토라 만을 정경으로 삼고 구전 율법을 거부하였다. 다른 말로 하자면, 카라이트들은 랍비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첨가된 모든 가르침들을 거부하였다.

서의 마지막 부분 (3<sup>11</sup>이하)부터, 전도서, 애가, 에스더서가 분실되었고, 다니엘, 에스라 역시 분실되었다.

\*\*\*

알렘포 사본은 1986년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의 사본 복원 연구실로 보내어져서 10년 동안 사본의 복원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분실된 사본의 어떻게 복원되었을까? **분실된 사본을 복원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분실된 사본을 찾는 것이었다.** 예를 들자면, 역대기의 중간부분의 경우, 폭동 당시 알렘포의 유대인 공동체는 이 부분을 회당의 마루바닥 아래에 숨겨 두었다. 그 후 알렘포 공동체의 후손은 이 사본을 아무도 모르게 미국으로 옮겼고, 한 유대인의 서랍장에 숨겨져 있다가 1981년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다. 또, 출애굽기의 한 부분은 미국으로 이주한 알렘포 공동체의 유대인의 지갑 속에 보관되어 오다가 이스라엘에 기증되었다. 또 다른 방법의 복원 작업 방법 중 한가지는 **알렘포 사본을 인용한 책들 안에서 분실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다.** 알렘포 사본은 그 권위와 정확성 때문에 당대, 내지는 후대의 여러 학자들이 알렘포 사본을 근거로 하여 성서 본문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현재 전해지지 않는 사본들은 이들의 책이나, 기록물들의 인용구들을 통하여서도 복원해 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래와 같다.

1) 16세기 말 이새 벤 암람 하코헨 아마디(ישי בן עמרם הכהן עמאדי) *Yishai ben Amram ha-Cohen Amadi*)가 알렘포 사본을 따라 교정하였던 토라<sup>4)</sup>

2) 카수토가 1943년에 알렘포 사본을 연구할 당시 발견한 알렘포의 성서 두루마리와 알렘포 사본과의 다른 점 열 한가지를 기록해 놓은 알렘포 랍비 므낫세 시트혼(רב מנשה סתהון *Rabbi Menashe Sithon*)의 노트

3) 1850년 예루살렘의 아쉬케나즈<sup>5)</sup>(אשכנז *Ashkenaz*) 랍비, 야곱 사피르(יעקב ספיר *Ya'aqob Sapir*)가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다섯 두루마리의 철자법과 읽는 법, 그리고 역양법들을 당대 최고의 문법학자이면서 마소라 전통의 전문가인 알렘포의 랍비 므낫세 시트혼에게 물어본 500 가지가 넘

4) 1490년에 인쇄된 오경을 이새 벤 암람 하코헨 아마디가 알렘포 사본을 따라 교정한 것으로, 뉴욕의 Jewish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발견되었다.

5) 원래 이 말은 독일의 유대인들과 11, 12세기 그들의 유대교에 대한 자료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후에, 아쉬케나는 독일 뿐 아니라, 북동 유럽의 유대인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는 질문과 답변의 목록

4) 랍비 샬롬 샤크나 옐린(ר' שלום שכנא ילין R. Shalom Shakhna Yellin)의 성서<sup>6)</sup>

아직까지 찾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며, 이렇게 분실된 사본의 조각 조각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이제 학자들은 이러한 분실된 사본의 문제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알렘포 사본들의 사진 자료들 역시 복원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알렘포 사본의 세 쪽을 찍어 놓은 두 장의 사진이 발견되었다. 각각의 사진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촬영된 것이다. 첫 번째 사진은 1887년에 영국 학자인 윌리엄 워스(William Wickes)가 출판하였는데, 창세기 27장을 찍은 것이고, 두 번째 사진은 선교사 조셉 시걸(Joseph Segall)이 1910년에 촬영한 것으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 부분이다. 카수토는 알렘포에서 연구 당시, 이 사본을 사진을 찍어 복사본을 남기려고 하였으나, 알렘포에서 사진 필름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사진의 질 역시 너무나 낮았을 뿐 아니라, 알렘포의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이 반대로 사본을 사진으로 찍으려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다.

\*\*\*\*

마소라 전통에 근거한 많은 사본들 중에, 특별히 알렘포 사본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간략하게 알아보자. 얼마나 많은 초기의 성서 사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1500년 이전에 기록된 성서 사본의 수를 세보면, 그 수가 200을 넘는다. 그리고 알렘포 사본은 그 많은 사본들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좁혀 마소라 학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인 10세기와 11세기에 성서 전체 내지는 성서 일부분을 기록한 사본의 수는 초기 사본으로 분류되는 200이 넘는 사본의 숫자 가운데 고작 열 둘이다. 그리고 이 열 둘조차도 그 중의 반은 성서 각 권의 일부분만을 기록하고 있는 사본의 조각들이다. 학자들은 마소라 전통에 의거한 사본들을 철자법이나, 모음의 표기, 억양법 등 다양한 언어학적인 측면의 연구를 통해서 그 정확성과 다양성을

---

6) 랍비 샬롬 샤크나 옐린은 리투아니아(Lithuania) 사람으로 성서 교정의 전문가이다. 그는 성서를 읽으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철자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을 성서의 여백에 빼곡히 기록하여 사위를 통해서 알렘포로 그 성서를 보냈고, 그의 성서에는 그의 질문에 대한 알렘포 사본을 근거한 답변들이 있다.

연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권위 있고, 정확한 사본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본의 권위와 정확성을 ‘알 수 없음’으로 내버려 둘 것인가? 이제부터 알렘포 사본의 권위와 정확성에 대해서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기로 하겠다.

### 내적인 증거 (알렘포 사본을 기록한 마소라 학자들의 정확성):

1. **마소라 주기 (Masoretic notes).** 때때로 모음이나 억양법 기호를 빼먹던가, 적합하지 않은 강세가 본문에 적용이 되는 서기관들의 부주의한 실수들이 사본에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소라 주기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떠한 동사가 완전서법으로 기록되어야 하는데, 필사자의 실수로 불완전 서법으로 기록되었을 경우, 마소라 학자들은 마소라 주기에 어김없이 그 원래 형태인 완전서법의 단어들의 목록들을 정리해 놓았다.

2. **마소라 본문 비평적 각주.** 다양한 많은 사본들과 마소라 사본들을 비교하여 놓은 마소라 장치는 마소라 학자들이 얼마나 사본들에 정통하고, 사본의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마소라 주기와 함께 마소라 본문 비평적 각주는 초기 성서 사본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마소라 본문의 장치들이다. 학자들은 이러한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과 수천 가지의 연구방법으로 알렘포 사본을 연구하고, 다른 사본들과 비교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다.

이 사본의 모음 음가 표기법이나 억양법은 사본들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후기 사본의 필사자들이 이미 잊어버린 초기 억양법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연구한 티베리안 성서 사본 중에서 알렘포 사본은 가장 정확한 사본이다. 예이빈 (יֵיבִין Yeivin)

알렘포 사본을 아주 세심하게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소라 학자들의 이토록 놀랍고도 완벽한 필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마소라 학자들은 모음 표기법과 억양법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모든 필사자들 중에 마소라 규칙과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고 필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고, 사본들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랍비 모르드개 브뤼어 (רַבִּי מֹרְדֵכַי בְּרֻיֵאֵר Breuer)

레닌그라드 사본으로 알려진 사본에는 예언서에서만 250개가 넘는 완전서법과 불완전 서법간의 모음 표기의 실수가 발견되었고, 카이로 사본의 예언서에서는 130개가 넘는 모음 표기상의 실수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알렉포 사본에서는 예언서에서 단 두 군데에서만 모음 표기상의 실수가 발견되었다. (랍비 모르드개 브뤼어)

**외적인 증거 (알렉포 사본의 필사자 아론 벤 모세 벤 아셀):** 외적인 증거는 알렉포 사본을 기록한 아론 벤 모세 벤 아셀이 마소라 학자들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알렉포 사본은 다른 많은 사본들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사본이다.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알렉포 사본은 아론 벤 모세 벤 아셀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초기 사본 필사자들이 그의 사본을 따라 필사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에 있다. 1008년에 쓰여진 레닌그라드 사본의 맨 뒤에는 이렇게 써 있다: “사무엘 벤 야곱(עקב בן שמואל Shmuel ben Ya'aqob)이 이 사본 (레닌그라드 사본)의 마소라 주기를 복사하고, 음가를 붙이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 작업은 아론 벤 모세 벤 아셀의 책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의 마소라 모음 표기와 억양법 체계는 당시 다른 사본 필사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성서 필사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안내서였다. 12세기에 이르러서 알렉포 사본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당대 가장 뛰어난 유대 주석학자 마이모니데스 (רבי משה בן מימון Rabbi Moshe ben Maimon 내지는 הרמב"ם ha Rambam)는 마소라 전통에 근거한 사본 중에서 알렉포 사본을 가장 완벽한 성서의 사본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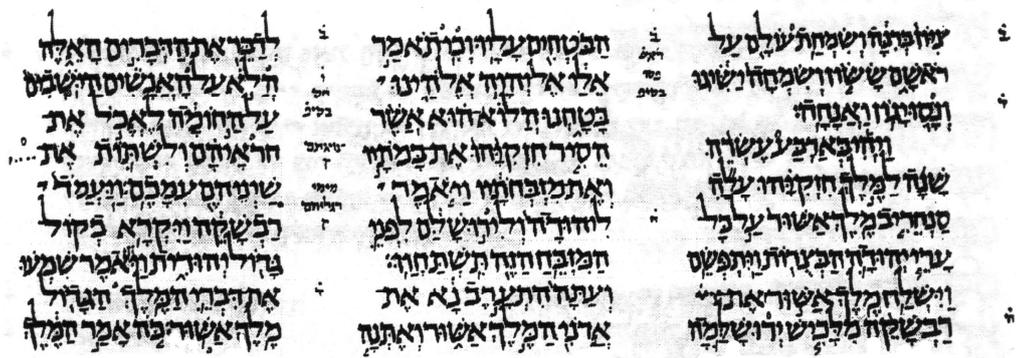
\*\*\*\*\*

**알렉포 사본을 바탕으로 한,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주요한 참조서:** 케테르 예루살라임은 알렉포 사본의 본문과 마소라 주기를 바탕으로 편집되었으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초기 사본들을 따르고 있다: 성서류 Leningrad Codex, St.Petersburg, Russian National Library EBP I B19<sup>A</sup>; Sassoon 1053, Rabbinic Bible (printed in Venice). 단일 사본류, 오경 London, British Library Or.4445; Jerusalem, Jewish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24° 5702 (formerly Sassoon 507); <sup>מ</sup> (formerly Cairo, Gottheil 14). 예언서 Cairo, Gottheil 34. 성문서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Add. 1753. 캄브리지의 성문서 필사본인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Add. 1753. (15세기 예멘계 유대인들이 기록)을 제외한 사본들은 모두가 10세기와 11세기에 근

동에서 기록된 것이다.

**각 권의 순서:** 케테르 예루살라임 각 권의 순서는 개신교 각 권 성서의 순서와는 다르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BHS의 순서와는 같다.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알렘포 사본의 순서는 현재 출판된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순서와는 성문서 부분에서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12 소예언서 뒤에 위치한 성문서의 순서가 케테르 예루살라임에서는 시편—잠언—욥—아가—룻—애가—전도서—에스더—다니엘—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의 차례를 따르고 있지만, 알렘포 사본에서는 역대기—시편—욥—잠언—룻—아가—전도서—애가—에스더—다니엘—에스라 (느헤미야)의 순서를 지키고 있다.

**지면 구성과 서체:** 케테르 예루살라임은 알렘포 사본과 마찬가지로 성서본문의 지면을 3단으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알렘포 사본 3단 구성의 예

이와 같은 3단 구성은 알렘포 사본만의 독특한 성서본문의 지면 배치 구조는 아니다. 알렘포 사본 이외에도 많은 사본들이 알렘포 사본과 같이 3단 구성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5세기 인쇄술이 발전하고 성서가 필사가 아닌, 인쇄의 기술로 보급된 이후, 사본의 고유한 지면 구성들이 무시된 채, 보다 수월한 인쇄작업과 읽기 쉬운 지면 배치라는 기능성 강조 일변도로 인해서 일반적인 문학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단의 구분이 없이 출판되어져 왔다. 그러나 케테르 예루살라임은 알렘포 사본과 같은 지면의 구성과 배치를 추구하여 본문의 정확성과 함께 그 전통을 함께 내려 받기에 충실하였다. 또한,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서체 역시 알렘포 사본의 서체를 바탕으로 그 서체 고유의 모양 그대로를 컴퓨터에서 인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컴퓨터 서체를 개발하였다.

וַיְהִי בְּאַרְבַּע עָשָׂר שָׁנָה  
 לְמֶלֶךְ חֲזַקְיָהוּ עָלָה סַנְחֵרִיב  
 מֶלֶךְ-אַשּׁוּר עַל-כָּל-עַרְוֵי יִהוּדָה  
 בַּבְּצֻרוֹת וַיִּתְּפֹשֶׂם: וַיִּשְׁלַח  
 מֶלֶךְ-אַשּׁוּר אֶת-רַב־שָׁקָה  
 מַלְכֵי־יְרוּשָׁלַיִם אֶל-הַמֶּלֶךְ  
 חֲזַקְיָהוּ בַחֵיל כְּבוֹד וַיַּעֲמֵד  
 בַּתְּעֵלַת הַבְּרִכָּה הָעֲלִיּוֹנָה  
 בְּמַסְלַת שָׂדֵה כּוֹבֵס: וַיֵּצֵא  
 אֵלָיו אֱלִיָּקִים בֶּן-חֲלָקְיָהוּ  
 אֲשֶׁר-עַל-הַבַּיִת וַשִּׁבְנָא הַסֵּפֶר  
 וַיֹּאחַז בֶּן-אַסָּף הַמְּזֻכָּר:

לו"א  
 לְמֶלֶךְ חֲזַקְיָהוּ עָלָה סַנְחֵרִיב  
 מֶלֶךְ-אַשּׁוּר עַל-כָּל-עַרְוֵי יִהוּדָה  
 בַּבְּצֻרוֹת וַיִּתְּפֹשֶׂם: וַיִּשְׁלַח  
 מֶלֶךְ-אַשּׁוּר אֶת-רַב־שָׁקָה  
 מַלְכֵי־יְרוּשָׁלַיִם אֶל-הַמֶּלֶךְ  
 חֲזַקְיָהוּ בַחֵיל כְּבוֹד וַיַּעֲמֵד  
 בַּתְּעֵלַת הַבְּרִכָּה הָעֲלִיּוֹנָה  
 בְּמַסְלַת שָׂדֵה כּוֹבֵס: וַיֵּצֵא  
 אֵלָיו אֱלִיָּקִים בֶּן-חֲלָקְיָהוּ  
 אֲשֶׁר-עַל-הַבַּיִת וַשִּׁבְנָא הַסֵּפֶר  
 וַיֹּאחַז בֶּן-אַסָּף הַמְּזֻכָּר:

알렘포 사본, 이사야 36<sup>1-3</sup>

케테르 예루살라임, 이사야 36<sup>1-3</sup>

히브리대학교 성서 프로젝트 팀이 새로 간행될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서체를 사본의 서체에 기초하여 출간할 것을 결정한 뒤, 줄곧 사본 서체의 컴퓨터 서체화 작업이 연구되었고, 1998년부터 3년여 동안 케테르 예루살라임 전권에 이르는 타이핑 작업과 교정 작업이 계속되었다. 교정은 히브리어 학회 (Academy of the Hebrew Language)의 연구진들이 팀을 이루어 3회에 걸쳐서 정밀한 교정 작업을 전개하였다. 이 작업에서는 고대의 서기관들이 그러하였듯이 흔히 혼동되거나, 잘못 기록될 가능성이 있는, ו, ו, ח, ח, ג, כ, ס, כ, פ의 혼동과 오기, 액센트의 혼동 등, 문장, 단어, 구문, 문장 부호에 걸친 모든 부분의 오류에 대해서 바로잡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지면의 구성과 서체를 알렘포 사본의 것과 동일하게 하였다고 하여서, 알렘포 사본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같은 페이지에 같은 단어들이 같은 자리에 마치 복사하듯이 그대로 옮겨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본을 기록한 학자는 글자의 장평과 글자 사이의 간격을 손으로 기록하였기에 각각의 글자를 완벽하게 같게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줄에는 다른 줄과는 달리 더 많은 글자들이 뺄뺄하게 기록된 곳이 있고, 어떤 줄에는 다른 줄과는 달리 글자들이 좀 더 널찍하게 기록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컴퓨터화 된 서체는 이처럼 장평과 자간을 사람이 직접 옮긴 것처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마치 복사기로 사본을 복사한 듯이 한 줄에 알렘포 사본과 같은 글자와 글자 수를 그대로 옮

길 수는 없었다 (위의 이사야 36<sup>1-3</sup>의 비교 그림을 참조하라)의 h 361-3 35-36. 케테르 예루살라임에서 성서 본문의 단락과 단락은 빈 줄로 나뉘어 짐을 표시를 했다. 주의할 것은 종종 단락과 단락을 나누는 빈 줄이 단의 맨 처음인 단의 맨 위나, 맨 아래에 올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성서를 읽는 낭독자가 단락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것을 무시하고 지나치지 못하도록 빈 줄의 가운데에 ׀ 과 그 위에 • 을 함께 표기해 놓았다. 이와 비슷한 장치는 알렘포 사본에도 있다.

<p>ט יהוה: וידבר משה כן אל-בני ישראל ולא שמעו אל-משה מקצור רוח ומעבדה קשה:</p> <p>י* וידבר יהוה אל-משה לאמר: כא באדבר אל-פרעה מלך מצרים וישלח את-בני-ישראל יב מארצו: וידבר משה לפני</p>	<p>ז</p> <p>י* וידבר יהוה אל-משה ואל-אהרן ויצום אל-בני ישראל ואל-פרעה מלך מצרים להוציא את-בני-ישראל מארץ מצרים: יי* אלה ראשי בית-אבתם בני ראובן בכר ישראל חנוך</p>
-----------------------------------------------------------------------------------------------------------------------------------------------------------------------------------------	--------------------------------------------------------------------------------------------------------------------------------------------------------------------

단락과 단락의 구분

단락을 구분하는 줄간 여백이 맨 위에 있는 경우

단락의 구분은 알렘포 사본을 그대로 따랐으며, 오경에서 분실된 부분의 단락 구분은 알렘포 사본에 근거하여 성서를 설명하고 있는 마이모니데스의 것을 따랐고, 예언서와 성문서의 분실된 부분의 단락 구분은 살롬 샤크나 엘린의 성서를 바탕으로 하였다.

시가, 시편, 잠언과 욱 : 성서에는 다양한 시가들 (노래들)이 있는데, 이들의 지면 구성은 마소라 전통에 근거한 사본들의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므로, 케테르 예루살라임이 세 개의 단을 나누어 기록한 사본의 지면 구성을 그대로 따르는 한편, 시가나, 시편, 잠언과 욱의 경우는 편집을 위한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기본 지면 구성 원칙인 삼단구성을 벗어나, 마소라의 전통 대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의 경우에는, 그 배열을 알렘포 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단의 배열을 따랐다. 예멘 전통의 사본 역시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70 줄의 긴 노래이다. 원래 이 노래는 알렘포 사본과 예멘 전통의 사본에서 67줄로 기록되어 있으나, 케테르 예루살라임에서는 유대인 공동체들의 전통인 MS Jerusalem 24°를 따라서 70줄을 고수하였다.

예언서와 성문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노래들은 알렘포 사본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다: 여호수아 12장의 가나안 왕들,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 에스터 9장의 하만의 열 아들들, 역대기상 16장의 아삽의 노래. 알렘포 사본과 다른 사본들에서 시편, 잠언, 욥은 시가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독특하게 각 열의 가운데에 여백을 두었다. 많은 성서들이 이러한 전통을 무시하고 있지만, *케테르 예루살라임*은 사본들의 전통을 따라 배치하였다.

**철자법** : 모르드개 브뤼어 이후 요셉 오페르 (יוסף עופר *Yosef Ofer*)는 예언서의 경우, 레닌그라드 사본은 250군데 넘는 곳, 카이로 필사본의 경우는 300여 군데가 넘는 곳에서 마소라 전통과 일치 하지 않은 곳이 발견된 가운데, 알렘포 사본에는 오로지 한 군데에서만, 마소라 전통과 배치되는 곳이 발견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언서와 성문서는 알렘포 사본의 전통을 따른다. 오경에서는 아홉 군데 철자법상 유대 전통과 다른 곳이 발견되었는데, 예멘 전통의 사본은 이러한 아홉 군데 철자법상의 문제들이 없이 완벽하였고, 알렘포 사본은 오로지 한 군데에서만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오경은 예멘 전통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같은 예멘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아쉬케나즈 공동체 (אשכנזי *Ashkenazi*)와 스파라드 공동체 (ספרדי *Sfaradi*) 또한 철자법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아래 쪽의 여백에 ס"א (ספרים אחרים *sfarim acherim*: 다른 책들)이라는 표기를 해두었다.

**음가, 억양법, 그리고 보조 강세들**: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음가, 억양법, 그리고 보조 강세들은 알렘포 사본의 것을 기초로 하였다. 그리고 때에 따라 다른 다른 사본에서 다른 독법이 제시된 경우 해당 단락의 아래에 이독(異讀) 들을 표기하였다. 그리고 알렘포 사본 중, 현재 분실되어서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의 독법은 레닌그라드 사본의 것을 따랐다. 그리고 메텍 (מתג *meteg*)이나 자캡 카톤 (זקף קטן *zakef katon*)과 같은 보조 강세들은 레닌그라드 사본 이외의 다른 사본들을 함께 참고하였다. 여기서 반드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연구개음이 아닌 자음 (non-guttural consonant) 아래에 있는 반모음 (חטף *chataf*)의 용례이다. *케테르 예루살라임*에서는 때때로 알렘포 사본에서 사용된 유동 쉘바 (שׁוּאָ נָע *sheva na*) 들을 고쳐서 다시 표기하였다. 이렇게 고쳐서 표기한 이유는 현재의 발성법이 티베리아스의 마소라의 발성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반모음인 유동 쉘바의 발음은 현대 대부분의 유대인 공동체의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케테르 예루살라임*에서는 알렘포 사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동 쉘바를 더

적합한 음가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메텍의 위치도 알렘포 사본의 것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후기 성서들에는 메텍이 개음절에서 자주 나오는 반면에, 알렘포 사본에는 메텍이 드물다. 그래서 *케테르 예루살라임*은 두 가지 종류의 메텍을 사용하고 있다. 자음 아래의 긴 세로줄 보조 강세는 알렘포 사본 내지는 레닌그라드 사본에 원래부터 있는 메텍이고, 그 보다도 짧은 메텍은 다른 사본을 참고로 하여, 추가된 메텍이다.

**여백에 표시된 특수한 기호들 (Marginal notation):** 매주마다 유대인들이 읽어 나아가는 성서의 단위 단락인 파라샤 פַּרְשָׁה *parasha*<sup>7)</sup>는 오른쪽 페이지인 경우,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의 페이지인 경우에는 왼쪽의 위 구석에 책 이름과 함께 세로 줄 옆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성서 본문에도 오른쪽 여백에 파라샤의 이름과 알리야 עלייה *aliyah*, 마프티르 מַפְטִיר *maftir*를 표기해 놓았다. 파라샤를 나누는 원칙은 대부분의 유대인 공동체가 사용하는 파라샤 구분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와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읽는 부분인 파라샤의 첫 부분에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각 절의 오른쪽 여백에는 별표(\*)로 그 나뉘어짐을 표시하였다. 종종 나타나는 왼쪽 여백의 ס은 히브리어 세데르 סֵדֶר *seder*의 약자로, 유대인들이 3년 동안 걸쳐 읽어 나아가는 성서의 단락이 나뉘어짐을 표시하는 기호이다<sup>8)</sup>.

7) 파라샤는 7개의 알리와 1개의 마프티르로 구성되어 있다. 알리는 매일 매일 읽는 파라 안의 작은 단락들이고, 마프티르는 파라를 마치는 맨 마지막 단락이다.

8) 이 표기법은 이스라엘 전통에 따른 성서 읽기 방법이다. 이세데를 따라 읽어 가면, 3년 내지는 3년 반 만에 오경을 읽을 수가 있다.

6 שמות שמות ה

1 j וידבר יהוה אל-משה ואל-אהרן ויצום אל-בני ישראל ואל-פרעה מלך מצרים להוציא את-בני-ישראל מארץ מצרים:

2 חשי אלה ראשי בית-אבתם בני ראובן בכר ישראל חנוך ופלוא חצרן וקרמי אלה משפחת ראובן: ובני שמעון ימואל וימין ואהד ויכין וצחר ושואל בן-הכנענית אלה משפחת שמעון: ואלה שמות בני-לוי לתלדותם גרשון וקהת ומרי ושני חיי לוי שבע ושלישים ומאת שנה: ו בני גרשון לבני ושמי משפחתם: ובני קהת עמרם ויצהר וחברון ועזיאל ושני חיי קהת שלש ושלישים ומאת שנה: ובני מרי מחולי ומושי אלה משפחת הלוי לתלדותם: ויקח עמרם את-יוכבד דתו לו לאשה ותלד לו את-אהרן ואת-משה ושני חיי עמרם שבע ושלישים ומאת שנה: ובני יצהר קרח ונפג וזכרי: ובני עזיאל מישאל ואלעפן וסתר: ויקח אהרן את-אלישבע בת-עמינדב אחות

בְּרִיתִי אִתְּם לִתֵּת לָהֶם אֶת-אֶרֶץ כְּנָעַן אֶת אֶרֶץ מִגְרִיהֶם אֲשֶׁר-גָּרוּ בָּהּ: וְגַם אֲנִי שָׁמַעְתִּי אֶת-נֹאקֶת בְּנֵי יִשְׂרָאֵל אֲשֶׁר מִצְרִים מַעֲבֹדִים אִתְּם וְאֶזְכֵּר אֶת-בְּרִיתִי: לָכֵן אֹמַר לְבְנֵי-יִשְׂרָאֵל אֲנִי יְהוָה וְהוֹצֵאתִי אֶתְכֶם מִתַּחַת סִבְלַת מִצְרַיִם וְהִצַּלְתִּי אֶתְכֶם מֵעֲבָדֵתָם וְגֵאלְתִּי אֶתְכֶם בְּזִרְעַ נְטוּיָה וּבְשִׁפְטִים גְּדוּלִים: וְלִקְחֹתִי אֶתְכֶם לִי לְעַם וְהָיִיתִי לָכֶם לֵאלֹהִים וְיָדַעְתֶּם כִּי אֲנִי יְהוָה אֱלֹהֵיכֶם הַמּוֹצֵיא אֶתְכֶם מִתַּחַת סִבְלֹת מִצְרַיִם: וְהִבַּאתִי אֶתְכֶם אֶל-הָאָרֶץ אֲשֶׁר נִשְׁאַתִּי אֶת-יְהוָה לִתֵּת אֹתָהּ לְאַבְרָהָם לְיִצְחָק וְלְיַעֲקֹב וְנָתַתִּי אֹתָהּ לְכֶם מִורְשָׁה אֲנִי יְהוָה: וְדַבֵּר מֹשֶׁה כֵּן אֶל-בְּנֵי יִשְׂרָאֵל וְלֹא שָׁמְעוּ אֶל-מֹשֶׁה מִקְצֵר רֹחַ וּמֵעֲבֹדָה קָשָׁה:

3 וידבר יהוה אל-משה לאמר: באדבר אל-פרעה מלך מצרים ושולח את-בני-ישראל מארצו: וידבר משה לפני יהוה לאמר הן בני-ישראל לא-שמעו אלי ואך-שמעני פרעה ואני ערל שפתיים:

לֹא עָשׂוּ וְהָיָה עֲבֹדָה מִמֵּיץ וְחִטָּאת עֹמֶה: וַיֹּאמֶר נְרָפִים אִתְּם נְרָפִים עַל-כֵּן אִתְּם אֹמְרִים נִלְכָה נִזְבַּחַה לַיהוָה: וְעַתָּה לֹא עֲבֹדוּ וְתַבֵּן לֹא-יִפְתָּן לָכֶם וְתַכֵּן לְכַנְּסֵם תִּתֶּנּוּ: וַיֹּרְאוּ שְׁטָרֵי בְנֵי-יִשְׂרָאֵל אֶתְּכֶם בְּרַע לֵאמֹר לֹא-תִגְרַעוּ מִלְּבַבְכֶם דְּבַר-יוֹסֵם בְּיוֹמוֹ: וַיִּפְגְּעוּ אֶת-מֹשֶׁה וְאֶת-אַהֲרֹן נְצִבִים לְקִרְאתָם בְּצֵאתְכֶם מֵאֶת אֶרְצָה: וַיֹּאמְרוּ אֱלֹהִים יֵרָא יְהוָה עֲלֵיכֶם וַיִּשְׁפֹּט אֲשֶׁר הִבְאִשְׁתֶּם אֶת-רִיחֹנוּ בְּעֵינֵי פְרֹעֶה וּבְעֵינֵי עֲבָדָיו לִתֵּת-חֶרֶב בְּיָדָם לְהִרְגֵנוּ: וַיִּשֶׁב מֹשֶׁה אֶל-יְהוָה וַיֹּאמֶר אֲדֹנָי לְמָה הִרְעִיתָ לְעַם הַזֶּה לְמָה זֶה שְׁלַחְתָּנִי: וּמֵאֵז בָּאתִי אֶל-פְּרֹעֶה לְדַבֵּר בְּשִׁמְךָ הִרַע לְעַם הַזֶּה וְהִצַּל לֹא-הִצַּלְתָּ אֶת-עַמֶּךָ: וַיֹּאמֶר יְהוָה אֶל-מֹשֶׁה עַתָּה תִּרְאֶה אֲשֶׁר אֶעֱשֶׂה לְפְרֹעֶה כִּי בְיַד חֹזֶק וּשְׁלֹחַם וּבְיַד חֹזֶק יִגְרַשֶׁם מֵאֶרֶץ: וַיֹּאמֶר אֱלֹהִים אֶל-מֹשֶׁה וְאָרָא אֶל-אַבְרָהָם אֶל-יִצְחָק וְאֶל-יַעֲקֹב כֹּאֵל שְׂדֵי וּשְׂמֵי יְהוָה לֹא טָדַעְתִּי לָהֶם: וְגַם הִקְמַתִּי אֶת-

케테르 예루살라임, 출애굽기 5<sup>17</sup>-6<sup>23</sup>

1. 단락 구분 여백이 단의 맨 위에 있는 경우,
2. 파라샤 안의 알리아와 마프티르,
3. 파라샤의 첫 알리아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
4. 긴 메텍과 짧은 메텍,
5. 세데르,
6. 파라샤의 이름.

<Abstract>

## A Review of the Hebrew University Bible, *keter Yerushalaim*

Ick-Sang Lee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introduce the Hebrew University Bible, *keter Yerushalaim*. Since the early 1940s,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had tried to publish an accurate text of the Bible, and the Hebrew University Bible Project (HUBP) was established during the 1950s. Recently, thanks to the effort of the HUBP and many scholars, the Hebrew University published *keter Yerushalaim*, which is based on Aleppo Codex.

In this review, not an overly scholastic article, I will describe from when the Hebrew University came to cherish the idea of publishing the new Bible, how the preparations proceeded, and how this Bible is different from all others. Furthermore, I will elucidate how readers may make good use of this Bible based on its unique system.

I explain that this review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Jerusalem Crown? The Bible of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כתר ירושלים—תנ"ך האוניברסיטה העברית).